

# “불교는 가르침에 기반한 종합적 문화체계”

### 기무라 日 불교학자, 10일 동국대 특강서 불교학 방향 제시

일본 최고의 불교학자로 꼽히는 기무라 도쿄대 명예교수(사진)가 동국대에서 불교학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4월 10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기무라 교수는 불교 연구에 있어 문헌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인문과학의 범주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불교학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무라 교수는 이날 “불교는 석존의 가르침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가르침에 기반한 불교문화의 체계로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무라 교수는 현재 불교학계에서 행해지는 문헌학적 불교연구가 갖는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문헌학 연구의 선두주자인 일본학계에서의 문제점을 토대로 이런 한계를 밝혔다.

기무라 교수는 “현재 사상을 연구하는 기본방법으로 필로로지(Philology)라고 말하는 문헌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전제하고 “불교연구를 문헌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문헌학적 연구를 하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무라 교수는 “문헌 속에서의 맥락을 중요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문헌의 일부분에만 치우치지 보다는 큰 흐름에서 이를 볼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학 연구는 최근 컴퓨터의 발전으로 전자텍스트를 사용해 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문헌을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기무라 교수는 “최근에는 전자텍스트를 사용해 단지 글자나 단어를 검색하고 이를 통해 동일한 글자, 단어라는 단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 기무라 교수는 “불교는 2000년 이상 전개된 종합적인 문화체계라며, 문헌학 연구 이전에 정확한 관점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문헌이라는 것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서지학과 구별되지 않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무라 교수는 또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주위의 연구결과 가운데 어떤 연구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학자들에게 강조했다.

기무라 교수는 “연구논문을 쓸 때는 전문용어에 너무 기대지 말고, 용어가 지닌 본 의미를 얼마만큼 현재의 용어로 환원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학술논문은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하여 논문은 완성된 후 어디에든 쓰일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무라 교수는 ‘부디즘’이라는



학제간 연구 강조 “사회맥락 알아야”

용어 집착 등 문헌연구 한계 밝혀

불교 영어 표현 ‘부디즘’ 잘못도 지적

용어를 비롯해 잘못된 용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무라 교수는 “‘이즘’ 곧 ‘주의’는 서양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으며, 한중일어를 넘어 서양으로까지 전파된 불교는 부처님으로부터 유래한 가르침의 총체이므로 이같은 용어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기무라 교수는 화엄학자로서 학문의 길과 일본 조동종의 승려로서 성직자의 길이라는 두 길을 걸어온 일본 최고의 불교학자로 평가받는다.

1940년 구마모토현에서 태어나 도쿄교 육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한 후 1975년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오랜기간 도쿄대 교수로 봉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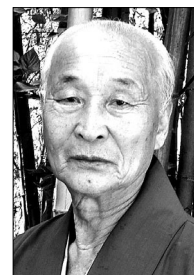
화엄학 연구에서는 1977년 <초기 중국 불교사상사의 연구>를 간행하여 화엄경의 한역, 화엄경류의 이역 및 위경, 지론, 설론, 삼론 등의 화엄경의 연구사를 배경으로 하는 지엄스님의 화엄학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1992년에는 중국초기부터 요(遼)와 명(明)에 이르는 <중국화엄사상사>를 저술하였으며, 최근에는 화엄경별행본들에 대한 주석 작업을 간행하여 화엄학 연구에 완성도를 더하였다.

한편, 지엄스님을 연구하면서 지엄의 제자 의상스님에게 자연히 관심을 가졌고, 특히 김지전 교수와의 만남을 계기로 의상뿐 아니라, 원효, 균여 등의 한국불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남겼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실천불교 55년, 대중 결사운동 필요”

### 선진규·권기종 등 ‘호미든 관음성상’ 특별강연회서



‘실천불교’의 상징인 ‘호미든 관음상’ 봉안 55주년을 맞아 4월 5일 학계 학자들이 모여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특별강연회에는 선진규 봉화 정토위원장(사진)과

강연회에서는 ‘호미 든 관음상의 역사적 조망’이란 주제로 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의 ‘노동과 생산에 대한 불교적 관점’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의 ‘봉화산 호미 든 관음상의 불교사적 의의’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은 “불교도 능동적인 생산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 농민원을 세워 농촌을 살리고 식물을 통한 조림사업으로 국토를 푸르게 가꾸자는 것이었다”고 건립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노동과 생산에 관한 기존교단의 인식과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대승보살의 삶을 실천하자는 새로운 불교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권기종 원장은 “이러한 실천불교의 운동은 현재에 활발히 펼쳐야 한다”며 “사찰과 도농이 연계된 지역공동체 구성과 연계하여 불자들은 잡초(삼독심)를 뽑고, 진리(보리심)를 심자”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우리 토속신앙 속 불교의 흔적은?



장정태 동국대 박사 <삼국유사>를 분석해 당시 불교계와 민간신앙계의 교류와 상호영향을 연구한 저서가 눈길을 끈다.

교인 도교, 유교, 불교는 서로 넘나들며 융인하면서 민간신앙과 습합의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왔으며 그 중에서 불교가 어느 종교보다 습합의 양상이 두드러졌다.

장 박사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 하나의 종교사상으로 민간에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토착신앙을 토대로 정착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며 “배타성이 없는 가르침이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민족성과 환경에 잘 적응함으로써 우리 민족, 국가, 풍토, 습속에 맞는 종교로 성장해 나갔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 94년 조계종 개혁을 보는 또 다른 시각

### 불교교단사연구, <승가화합과 조계종의 미래> 발간

계을 관련 논문 21편 게재 개혁 비판 논문도 다수 포함 '94년 개혁 비불교적 행위'

불교를 이끌어온 승단은 예로부터 화합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한국 현대불교사는 그렇지 못하다. 화합보다는 정치적 거리가 우선이 되며 입장 차에 따라 파벌이 형성돼 서로 반목한다. 이것은 분명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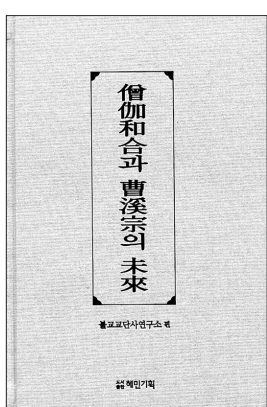
불교교단사연구소(소장 정천규)는 최근 승단 운영 문제와 대안을 학술적으로 조명 한 연구총서 <승가화합과 조계종의 미래·사건>을 발간했다. 연구소는 이에 앞선 3월 29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출판기념식을 열기도 했다.

연구총서 <승가화합과 조계종의 미래>

에는 그간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위원들이 다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선별해 총 21편의 논문들을 게재했다. 전체 3부로 구성된 연구총서 1부에서는 승가화합과 멸종법을 주제로 9편의 논문이, 승가의 지도자상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6편의 논문이, 3부에서는 조계종의 정체성과 개혁 문제를 주제로 6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한국의 승가와 비구계”를 발표한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은 자신의 논문에서 한국승단의 계율문제와 갈마법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도일 스님은 “조계종과 같이 구족계를 수지하는 출가승단의 경우 비정사(非靜事)는 갈마법으로 의결하고, 정사는 ‘칠멸정법’과 ‘멸정건도’에 의거해 판단한 후 제재를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갈마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



은 스님이라면 삼보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사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과 율장에 나타난 승가지도자상을 조명한 논문도 눈길을 끈다.

이자랑 박사는 “율장에 나타난 지도자상”에서 “율장 등에 나타난 율바라 지도자상은 경우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율을 어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며, 사소한 죄라도 범하는 것을 꺼리고 참회할 줄 알며, 여법한 가르침을 지녀 다른 이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4년 조계종 개혁을 비판적으로 조망한 논문들도 다수 수록됐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송서암의 불교개혁론’을 통해 전 조계종 종정 서암 스님이 1994년 종단 개혁에 앞서 제시한 불교개혁론에 대해 개했다. 김 교수는 “서암 스님은 종단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 방법을 율장에서 찾았다”며 “개혁방안도 교육을 통한 승려자질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불교교단사연구소 연구위원 덕산 스님은 ‘승단의 칠불쇠퇴법을 통해서 본 조계종의 현실’과 ‘휴암이 본 조계종단 개혁세력의 정체와 그들의 목표’ 등의 논문을 통해 조계종의 개혁이 비불교적이라고 주장했다.

덕산 스님은 ‘승단의 칠불쇠퇴법을 통해서 본 조계종의 현실’을 통해 “90년대 세차례 종단 사태는 종헌 상 종단화합법과 정사해결법과 종법 등을 위반한 불법 집회”라며 “종단 내 정사와 관련한 문제는 불교의 무장법과 멸종법의 원리 등 불교관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영산전 보물 지정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과 영산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과 양산 통도사 영산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은 통도사내 중로전의 중심 불전으로, 대웅전의 서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18세기 중엽에 증건한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 건물로서, 전반적으로 주요 구조부가 견실한 조선 후기(18세기 중엽) 불전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양산 통도사 영산전’은 하로전의 중심 건물로 남향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전면의 좌우에는 극락전과 약사전이 동서에 놓여 있다.

노덕현 기자



보물로 지정된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양산 통도사 영산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으로, 정면과 동 측면의 기단은 지대석 위에 면석을 놓고 갑석을 덮어 마감한 형태이며, 기단의 정면 중앙과 양 측면 앞쪽에는 계단이 놓여 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인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는지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 마기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기목 지방이를 씹으면 굳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병에서 마기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기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기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할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가공 마기목을 찾아서,병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초 소개, 병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기목, 효능, 병영
- 2013년 10월9일 수요일 - KBS1 TV 05시50분 내고향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기목 효능, 병영

**하.마.기.목.의.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이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리를 굳게 하여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예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관팔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보혈, 산기핵, 조결중,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고통이 든 어릴듯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기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민병의 균인 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수형선원이나 강원도 스님에 대중공양하실 분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품제 : 규양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제00619호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순한 수행인.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도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 강원 대학교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